

‘사람이 온다 미래가 온다’ 더불어민주당 인재 4호, 5호 발표

-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외교안보전문가’ 박선원**
- 국민건강지킴이! ‘보건의료전문가’ 강철희**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12월 27일(수) 10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역임한 박선원 씨(60세), 홍부외과 전문의이자 前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강철희 씨(59세)를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발표한다.

우선 박선원씨는 전라남도 나주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영국 유학길에 올라 2000년 워릭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그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통일외교안보분과 자문위원을 했고, 참여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 행정관을 거쳐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냈다.

특히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역임 당시 2006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배석하는 등 노무현 대통령의 신망을 두텁게 받았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주도하며 정상회담 성사를 이뤄낸 주역으로도 이름을 널리 알린 바 있다. 북핵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박선원씨가 능력을 발휘해서 돌파한 경험 때문에 ‘제갈량’, ‘피주머니’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2017년 대선 국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안보상황단 부단장을 맡아 당시 단장이었던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이후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국가정보원 기초실장을 거쳐 2021년 11월에는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역임하며, 국가정보원 개혁을 비롯해 대북 현안 해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행보로 인해 박선원씨는 한반도 및 국제정세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안보전략가로서 외교안보정책 발전에 기여할 책임자로 기대를 받고 있다.

박선원씨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무능외교, 망언외교, 안보불안의 집약판”이라 하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균형잡힌 실용적 외교전략으로 한반도 안보와 국익을 공고히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 외교안보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으로 서울 종로구 교북동에서 태어난 강창희씨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에 입학했다. 모두가 힘들다고 기피하는 흉부외과를 전공해 오랜 봉직의 기간을 거쳐 2004년 개원한다. 그러나 진료과별 영역의 파괴, 왜곡된 의료보험 수가체계를 직접 느꼈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의사회 활동을 시작하게 된 단초가 됐다.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과 비상대책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던 시기 이명박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의료영리화, 의료산업화 정책이 화두로 부상했다. 그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저버린 그릇된 정책논리에 매몰된 정권에 맞서 보건의료단체 및 정치권과 연대하여 국민건강권 수호에 앞장섰다. 2014년에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저지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경영하던 의원을 폐쇄하고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직을 맡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에 전념했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대한의사협회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맡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에 섰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시행하여 1차 진료기능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강창희씨는 지역사회 공공의료 행정의 중심인 지역보건소장도 역임하며 필수의료의 손길이 곳곳에 닿도록 노력해왔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 공직을 맡으며 의료복지와 보건의료행정에 관해서도 역량을 발휘해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를 역임하며 의료비 부담완화와 질 좋은 간병서비스 확보를 위해 힘썼으며,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수행할 당시에는 안전한 인체조직 이식재의 공급을 강화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신생 공공기관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졌다. 이에 강창희씨는 의료전문지식을 비롯한 소통능력과 리더십, 폭넓은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보건의료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진전시킬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강창희씨는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후퇴에 맞서 공공의료, 필수요를 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여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나가고 싶다”고 밝히며, 덧붙여 “한편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인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해답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충분히 보장받고 보살핌 받는 전 국민 돌봄사회로의 전환으로,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K돌봄 모델 완성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붙임 1> 박선원 프로필

<붙임 2> 박선원 인재 소개

<붙임 3> 강창희 프로필

<붙임 4> 강창희 인재 소개

□ 일반사항

- 1963년 전남 나주 출생(60세)
- 전남 나주 영산포상업고등학교 졸업(1982)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82학번)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동아시아학 석사(1995)
- 영국 워릭대학교(The University of Warwick)
국제학 박사(2000)



□ 주요 경력

- 연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전문연구원('00)
- 참여정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전략기획실 행정관('03~'05)
- 노무현대통령 국가안보전략비서관('06~'08)
- 인천광역시 국제협력·투자유치특별보좌관('12)
- 문재인 대통령후보자선거대책위원회 안보상황단 부단장('17)
- 駐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17~'18)
- 국가정보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18~'20)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20~'21)
- 국가정보원 제1차장('21~'22)
- 국회의장 경제외교자문위원('23)

□ 저서

- 하드파워를 키워라 - 노무현과 함께한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열음사, 2012)

군사독재가 공부 잘하는 모범생을 투사로 만들다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이하 ‘차장’)은 나주 남평에서 유명한 대목수 할아버지, 주산 학원과 철물점, 농약가게를 꾸리던 집안에서 태어나 공부 잘하는 모범생으로 자랐다. 아버지는 아들을 공인회계사나 유학을 보내 학자로 키우고 싶어 했다고 한다.

그러나 12.12 군사반란과 ‘서울의 봄’을 무참히 짓밟은 5.17 쿠데타는 박선원 차장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인생으로 내몰았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교 2학년 생이었던 박선원 차장은 이듬해 학내시위를 주도하여 정학을 맞기도 했다. 이후 연세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독재 타도 활동을 벌였고, 1985년에는 서울미문화원 점거농성으로 투옥되기도 했다.

외교안보전문가로의 변신, 요동치던 국내외 정세를 정확하게 예측

1987년 6.10 항쟁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자 박선원 차장은 영국 유학길에 올랐다. 군부독재정권의 연장을 막지는 못했지만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학생운동이 다른 방식의 사회적 기여가 필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민주화운동 당시 관심거리였던 한국 독재세력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국제질서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박선원 차장은 외교안보전문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니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후 미국 부시행정부의 신보수(네오콘) 세력은 북핵해결을 위한 제네바 합의를 모두 뒤집었고, 국내외 정세는 요동치기 시작했다. 박선원 차장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영변 핵시설 국제기구 사찰관 추방을 예측해내며 외교안보전문가로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다. 박선원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후보 안보팀으로 활동하면서 호평받았던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외교안보분야의 ‘찌주머니’

박선원 차장은 외교안보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2003년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국장이 되었고, 2006년에는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으로 임명됐다. 2005~2007년 사이에 있었던 북한 6자회담의 공동성명과 합의가 바로 박선원 차장의 작품이다. 북한의 핵포기 발언을 이끌어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은 박선원 차장에게 “제갈량”, “찌주머니” 등의 별명을 부쳐주기도 했다. 대북합의 뿐만 아니라 외교분야에서도 두드러진 능력을 보였다. 영화 ‘교섭’으로 유명한 샘물교회 선교단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해결을 진두지휘했다. 대통령 특사단으로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국방장관과 회담을 전개했고, 탈레반과의 협상을 주도해 사건을 해결했다.

백악관에서도 인정한 외교안보 전문가

노무현 정부 때는 수평적 한미관계, 방위력 개선 등 박선원 차장의 손이 닿지 않은 외교안보 정책이 없을 정도였다. 이로 인해 백악관의 신뢰가 매우 두터웠는데, 마이클 그린 백악관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백악관에 박 박사 전용 책상 하나 놓아주어야겠다”고 농담을 할 정도였다. 이런 인연은 박선원 차장이 미국의 안보분야 No.1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일한 계기가 되었다. 브루킹스연구소에서 3년간의 활동은 박선원 차장이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로서 인맥과 식견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중국 내 한류의 조력자

박근혜 정부 말기 한중관계는 사드 배치 문제로 최악으로 치달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관계 회복을 위해 문화적 접근방식을 택했고, 박선원 차장이 중국경제의 심장인 상하이 총영사로 부임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중국에 진출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평창올림픽을 홍보하며 한국문화 열풍을 재점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총영사 부임 5개월 만에 중국인들의 한국방문 비자전수를 사드 갈등 이전보다 50% 이상 증가시키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상하이 총영사 경험

은 박선원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을 모두 경험하고 균형잡힌 국익우선의 실용외교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큰 자양분이 되었다.

국가정보를 책임지는 기관을 지휘하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원 개혁을 시작하면서 박선원 차장이 다시 중용되기 시작했다. 당시 국정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정치개입으로 사회적 신뢰를 잃은 상황이었다.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업무를 시작했고, 기조실장을 거쳐 차관급인 국정원 차장으로 승진했다. 박선원 차장은 서훈 전 원장과 박지원 전 원장을 도와 인권의 온상이었던 대공수사국 기능을 조정하여 경찰로 수사권을 넘기고, 해외·대북·과학정보 수집역량을 대폭 강화하였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주도하기도 했다.

외교안보전문가의 필요성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 참담한 실패를 보이고 있다.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극단적이고 편향된 굴욕외교를 펼치며 국격과 국익은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균형외교가 절실한 시점이다. 박선원 차장은 미국과 중국 모두를 경험하고,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성공을 이끈 장본인이다. 박선원 차장은 “학문적 기반을 갖춘 안보경제 전문가이자 외교정책가로서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 일반사항

- 1964년 서울 출생(59세)
- 서울 대신고등학교 졸업(1983)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83학번)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의학 석사(2003)



□ 주요 경력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13~'16)
-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14~'16)
- 용인시 기흥구보건소장('16~'18)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18~'21)
-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21~'23)
- 흉부외과 전문의('05~현재)

□ 저서

- 돌봄도 강남이다!(메디치미디어, 2023)

흉부외과 전문의에서 의료정책 전문가로

6.25 한국전쟁 피난민 가정의 차남으로 서울에서 태어난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하 ‘부회장’)은 일제강점기 만주 용정에서 의술을 펴셨던 조부의 뜻을 이어 의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남들이 기피하는 흉부외과를 전공하면서 응급외상환자 치료를 접하게 되었고, 신촌세브란스 병원과 원주기독병원 등에서 근무하면서 지역간 의료 환경의 차이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2004년에는 종합병원 의사로서의 활동을 뒤로 하고 서울에서 개인의원을 개원하여 국내 1차의료의 실상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은 보건의료 정책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 왜곡된 수가체계, 상급종합병원 편중현상, 1차의료체계 붕괴, 정부와 의사 간의 갈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명약관화해 보였다. 강청희 부회장은 심장을 고치는 의사에서 국민의 마음을 고치는 의사로 태어나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이즈음이라고 말한다.

의료영리화, 의료산업화를 막기 위한 길고 긴 싸움을 시작하다

광진구 의사회 총무이사를 거쳐 2013년에는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로 중앙회에서 의료정책 활동을 펼쳐나갔다. 당시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의료영리화와 의료산업화 정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강청희 부회장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사를 맡아 대정부 투쟁을 총괄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정부에 맞서 민주당과 노동조합,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2014년에는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직을 맡아 본격적으로 보건의료 환경을 바꾸기 위한 제도 개선 활동에 들어갔다. 자신의 병원마저 버리고 실천하는 행정가로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와 의료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저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었다고 자평한다.

무력한 국가감염병 대응 체계 개혁을 이끈다

2015년에는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신종감염병 위기가 닥쳤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초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고, 메르스 예방을 위해 낙타고기를 먹지 말라는 등 무능하고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강철희 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신종감염병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가 할 역할을 대신했고,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맡아 국회와의 공조를 주도해 의료체계를 개혁했다. 코로나19 사태 때 빛을 발한 선별진료소 운영, 수진자 조회 시 방문이력 확인, 국가감염병 예방을 위한 응급실 체계 개선 등이 바로 강철희 부회장이 주도한 작품이다.

국민을 위한 끝없는 변신, 의협 부회장이 일선 보건소장이 되다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임기 이후 강철희 부회장은 개원의로서의 편안한 삶 대신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장을 맡아 다시 시민 속으로 들어갔다. 시민들을 만나는 의료 현장에서 지역사회 공중보건 사업, 방역 등 공공의료 말단 기능을 수행했다. 강철희 부회장은 이때 다양한 환자와 주민들을 만나며 지역기반의 의료체계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런 경험은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단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보건의료정책의 새판짜기

이후 강철희 부회장은 의사, 법률가, 공공의료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운동가들과 함께 ‘한국보건의료포럼’을 만들고 대표로 취임했다. 또한 2021년에는 기증된 장기 등 인체조직 이식재를 공익적 관리하는 한국공공조직은행의 은행장이 되어 콜드체인 배송체계를 도입하는 등 신생 공공기관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을 관장하는 정책전문가로서도 인정을 받은 것이다. 강철희 부회장은 “의사수 정원 확대, 의료민영화 등의 갈등으로 바람잘날 없는 의료 분야지만, 이제 국민 하나만을 보고 건강복지의 새 역사를 써야할 때다. 변화와 혁신을 위해 의사이자 행정가로서의 무한도전을 계속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